

# 국가科技발전에 科總역할 기대 95년학회지원금 획기적증액도 약속

## 金始中과기처장관, 과총 연두순시



◇1월20일 과총을 방문한 金始中과기처장관이 鄭斗勲상임부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金始中과과학기술처장관은 1월20일 연두순시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방문, 成樂正회장 金東一상임고문 鄭助英상임부회장 등 회장단과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후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김장관은 鄭상임부회장으로부터 과총업무현황을 보고받은뒤 『온국민이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과총은 국가과학기술 정책 활성화에 적극 호응하여 과학기술진흥의 기틀을 다지는데 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어 『94년도 과학기술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올해 정부부처가운데 과기처가 첫번째 업무보

고부처가 된 것은 그만큼 새정부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계는 일치단결하여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장관은 과총이 건의한 ▲민간과학기술총본산으로서의 과총육성 및 활용 ▲산학협동 활성화지원 ▲재외과학육성지원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지원 ▲과학기술아카데미 설립에 따른 운영지원 등의 요청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 배석한 李相泰 기술진흥국장에게 95년도 학회학술활동지원금을 전년도보다 3배정도 증액 책정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재외과학 가운데 신생 중국·CIS·호주과학에 일정액의 운영자금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현재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은 모든 과학기술인의 숙원사업인 만큼 예정工期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과총은 센터의 건설과 함께 현재 사업추진상 애로인 조직기구 및 인력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해외 고급과학기술자초빙활용(Brain Pool)사업을 한국과학재단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남북科技교류협력센터」설치 제의키로

#### 在外인력 데이터베이스化 추진

#### 과총, 南北민간科技교류推進協 총회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21일 타워호텔에서 남북민간과학기술교

류추진협의회 199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약 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기본 방향을 ▲한민족 공동체정신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통일기반조성 ▲남북과학기술공동관심분야 또는 취약기술의 상호보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유대 강화 등에 두고 주요사업으로 ▲남북 민간과학기술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 개최 ▲북한의 과학기술실태조사 연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운영 ▲재외고급인력통일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동협의회는 3~4월경에는 서울에서 과총 주관으로 남북과학기술심포지엄을 열어 남북교류협력가능성 모색 및 판문점 또는 연변에 「교류협력센터」 설치 제의에 관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

루게 된다.

또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

색하는 한편 향후 각 재외과협과 본국 간, 또는 재외과협간의 원활한 정보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94년도 정기총회광경.

회 총회를 5월에 미국에서, 임원회의는 10월에 프랑스에서 개최하여 북한의 동 협의회사업 동참유도방안을 모

및 인력교류를 위하여 재외고급인력 통일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과총 定總 2월25일 개최

### 이사회서 5개단체 新規가입 승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제29회 정기총회를 2월25일 하오3시 외교안보연구원강당에서 개최한다. 과총은 2월2일 평통회의실에서 1993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정기총회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9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농촌마을·주택연구회(회장 田耕培),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소장 白德鉉), <주>신도리코(대표 禹石亨), 아세아자동차공업<주>(대표 趙來承), 한국전력공사(대표 李宗勳) 등 5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했다.

◀ 成樂正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9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科總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